

삼위 일체 대축일  
제 1독서 : 잠언 8, 22-31  
제 2독서 : 토마 5, 1-5  
복 을 : 요한 16, 12-15

# 술정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 16, 13a)

## 강 룬

## 소 리

### 지난 5월을 생각하며

박종충 신부 / 고산 천주교회

초록이 무성했던 5월-성모 성월, 어버이날, 어린이날  
잔치로 가득한 5월은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재확인하는 달  
이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법인가? 우리의 가정, 부모, 자녀의 현주소인  
이 땅에 피와 힘의 논리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새긴 달  
이기도 하다.

역사의 5월은 5.16 군사혁명, 5.18 광주민중항쟁과 살육  
행위-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물들었고 서울의 봄,  
광주의 봄이 무력 앞에 짓밟혀버린 5월, 아름다워야만 했던  
역사의 5월은 이렇게 피로 물들기만 했다.

5월이면 각계 각층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두가  
파울린 결실을 찾으려는 소리가 아닌가. 무력의 힘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신념, 진리, 정의, 사랑은 절대 억눌리지 않는 영원한 힘  
이다. 무력의 억누름에 침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외침의 소리와 갈구는 더욱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다져진다.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진리가 역행되고 있는 세상은 언젠가 바뀌게 되고  
바뀌어야 한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 땅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욕을 위한 논리도  
거부되어야 한다. 진리를 가지고 간판을 내세워 당위성을  
전개하는 논리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증오와 한 맷힌  
사연을 내세워 보복하려는 의식도 하느님 안에서 관용으로  
화해해야 한다.

5월은 원한이 쌓인 달, 5월은 또한 민주화의 물결이 넘치는  
달, 자애로운 성모님은 모든 사람들이 맷힌 원한을 풀고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화해하기를 기도하실  
것이다.

참으로 화해해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양심에 캉기는  
것이 있는 이들은 그들의 양심에 물어 볼 것이다. 진정한  
화해-교회는 화해를 부르짖는다. 참 사랑을 외친다. 이  
외침의 소리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살찌울  
것이다. 지난 5월을 생각하면서, 예수 성심을 기리는 6월의  
하늘 아래 서서 진정한 화해를 열망해 본다.

### 먼 돈으로

교육개혁이 발표되었다. 지금은 선거를 앞둔 시기인데도  
이에 못지 않게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대단하다.  
역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잘 나타내 주는 모습  
이라 하겠다.

집안에 고3이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입시생이 되고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 가족이,  
특히 부모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 교육에 관한 한  
고3이 아니라 유치원시절부터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다른 것들에게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따지기로 듣다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어찌 되었건, 이제부터라도 무언가 제  
대로 해 보자는 것이 교육개혁을 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발표된 내용에서 의구심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발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듦다. 왜냐하면 교육개혁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위 종합생활기록부 하나만  
해도 그렇다. 지금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학급의 학생수를 대폭 줄여야  
하고,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줄여주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에 필요하다는 재원, 국민총생산(GNP) 5% 확보  
를 현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룬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

### 술정이 산책



## 성서교실 ⑤

##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창세 40, 1-23)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두 번째 한 쌍의 꿈 이야기로써 엘로히스트 문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요셉은 파라오의 경호대장 집의 감옥에 갇혀 지내던 어느날 궁정에서 왕을 가까이 모시던 시종장 둘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온다. 두 시종장 중 하나는 파라오에게 술을 올려 드리는 시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빵을 구어 올리는 시종장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두 시종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서로 달라 그 뜻을 풀어 보고자 고심하고 있었다. 고대 에집트인들은 꿈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미리 알려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요셉은 근심에 쌓여있는 그들을 보고, 요셉은 꿈의 올바른 해석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마술에 돌리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풀려고 한다.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꿈의 뜻을 밝혀 주실 것이다.

술잔 시종장의 꿈은 그의 직책과 연결되어 있다. 포도나무 세 가지가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는다. 시종장은 포도송이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포도즙을 짜넣고 왕에게 그 잔을 바친다. 이 꿈에 대한 해석으로 요셉은 포도나무 세 가지는 사흘을 가리키며 사흘 후에 파라오가 이 시종장을 복직시킬 것이라고 해몽해 준다.

요셉의 해몽이 그럴 듯하게 보였던지 빵 굽는 시종장도 자기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청한다. 빵 굽는 시종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은 불길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가리키는데 사흘 후에 파라오가 이 시종장을 잡아들여 말뚝을 몸에 박아 죽이고,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쪄아먹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사흘 후 파라오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벌이는데 두 시종장을 불러내어 술잔을 시중들던 시종장은 복직시키고, 빵을 만드는 시종장은 처형한다. 요셉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술잔 시종장은 당신이 복직될 때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던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이 마지막 기록은 다음 이야기 때 술잔 시종장의



옥중의 요셉 : 요셉은 두 죄수, 즉 왕의 술잔 시종과 빵 굽는 시종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

역할을 준비해 준다. 술잔 시종장은 파라오가 한 쌍의 꿈을 꾸고 그 뜻을 풀어 줄 사람을 백방으로 찾을 때에야 비로소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의 말씀은 주인 여자를 범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어려운 삶을 전해 주고 있다. 간수장의 특별한 배려로 대우를 받으며 지낼 수 있었지만 역시 갇힌 몸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서 어려움을 해쳐 나간다. 이 이야기에서도 다시 등용된 술잔 시종장이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도, 요셉은 그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린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난해한 꿈의 해석을 통하여 죄수의 처지에서 일약 에집트의 명재상이 될 날이 요셉에게 닥칠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꿈 해몽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에집트의 다른 해몽가들과는 달리 요셉은 마술이나 미신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 (시승) 녹용, 녹혈 판매

- 때 : 6월초부터
- 문의 : ☎ (0673) 42-0052
- 최봉 규(미카엘)
- 최동물병원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점·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 75-0524

## LG(금성)에어콘 충판

• 에어콘, 항온항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비) · 원승연(도밍고)  
심화공조 ☎ (0652) 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과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과 할부판매
- 일반악기 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 86-1181, 80-1111(교)
- 호출기 015-670-1651

## 잠깐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1995년 6월 17일~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의 원래 명칭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30년 전인 1965년 주교회의는 1949년 5월 이후 점차 목자 없는 침묵의 교회로 변해버린 북한 교회를 공적으로 기억하는 날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든 오늘의 남북 관계가 분단의 갈등과 대립을 점차 극복해 나가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주목하여, 한국 교회는 기도의 날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하여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든 신자들이 기도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오는 6월 25일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6월 26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다. 이 날을 잘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는 한국 교회 전체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새 역사를 여는 뜻깊은 기도운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날(6월 17일) : 민족 분단의 죄책에 대해 반성
- 둘째 날(6월 18일) : 참된 용서로 분단의 아픔을 씻음
- 셋째 날(6월 19일) : 남북의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 넷째 날(6월 20일) : 갈라진 민족의 일치를 위하여
- 다섯째 날(6월 21일) : 북한 동포를 위하여
- 여섯째 날(6월 22일) : 북한 교회를 위하여
- 일곱째 날(6월 23일) : 북한 선교를 위하여
- 여덟째 날(6월 24일) : 평화 통일을 위하여
- 아홉째 날(6월 25일) :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 교구소식

1. 축! 견진 : 6월 17일(토) 오후 4시 팔마 성당  
6월 18일(일) 오전 10시 30분 송학동 성당
  2. 교구장 사목방문 : 6월 16일(금) 남원, 도통동 성당
  3. 사제 연수회 : 6월 12일~14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천호 피정 안내 : 6월 15일(목) 주제-부르심, 강사-김기곤 신부, 문의 73-6600  
6월 17일~18일 주제-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 강사-조철현 신부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6월 18일(일) 오전 7시 가톨릭센타
  6. 주일학교 담당 수도자 여름 연수 오리엔테이션 : 6월 16일(금) 오후 2시 가톨릭센타
  7.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 6월 18일(일) 오후 2시 30분 가톨릭센타 3층 회의실
  8. 전국 레지아·꼬미시움 영적 지도신부 및 단장회의 : 6월 17일~18일  
제주 이시돌 목장, 주관-광주 세나뚜스
  9. 인보성체수도회 종신서원식 : 6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수녀원 본원
  10. 김선태 신부 전화번호 변경 안내 : ☎ 001(002)-41-37-21-11-27  
FAX. 001(002)-41-37-21-11-10
- ※ 축! 영명 : 13일(성 안토니오) 양재철 신부님

이전개업  
**토성한의원**  
공만택(사무엘)  
박순실(라파엘라)  
중화산동 사거리  
비사별아파트 상가 2층

**효자한의원**  
한방각파, 비만, 알레지성 체질,  
요실금 치료  
박우순(유스티노)  
유혜경(루시아)  
효자성당↔목화APT 사거리  
☎ (0652) 222-3129, 226-1075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 요십이 (1136) 김병오

왜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였소?

장간

법 앞에 성역은  
없으니까...

5.18 진상조사에 불응  
하는 최전대통령은  
왜 공권력을 투입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소?

마마

최규하 전대통령집은  
성역이니까...

마마

## 감사드립니다.

모친(김지혜·요안나·79세)을 잊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  
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종복 신부

## 감사드립니다.

부친(박병환 베드로·57세)을 잊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  
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박동진 신부

## 요촌 성당 60주년 교육관 건립 바자회

- 일시 : 6월 13일~18일(6일간)
- 장소 : 윤호관(구 해성학교)  
의류, 먹거리
- 주최 : 천주교 요촌교회

## 치질전문치료

##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삼위 일체 대축일

1. 성신 강림 대축일 친교의 잔치 행사에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첫영성체 : 18일 세례식-17일(토) 후 3시

· 치고해-17일 세례식 후

3. 예비자 면담 : 23일(금) 24일(토) 후 3시, 후 8시

4. 비풀마련 특별헌금 신입액 : 소계-2,011,400원

누계-31,166,400원

불현액 : 노승님-45만원, 성모님 밤 헌금-851,400원, 정원설, 김남준-각 1만원, 김지춘, 익명, 박옥이, 윤태만, 유명식, 김종혁-각 5만원, 김준택, 송명준, 익명, 이부철, 김재규, 강신록-각 10만원, 임옥순-2만원, 박홍주, 고이례, 박삼용-각 3만원, 구익분파-25만원, 이자수입-16,976원

\* 소계-2,598,376원 \* 누계-26,463,376원

5. 모임 :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14일 어머니미사 후)

③대건회(18일 장엄미사 후)

6. 금주 청소 : 중노 24, 26반

차주 청소 : 중노 27, 남노1반

□ 지난주 봉헌금 : 1,028,970원 □ 교무금 : 1,361,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본당 M.B.W.독상회 : 15~18일, 전 신자 참여바랍니다.

· 15~16일-본당 · 17~18일-수류 피정의 집

2. 첫영성체 : 18일(다음주일) 공식미사(11명)

3. 레지오 단원 교육 : 20일(화) 오전 10~12시

4. 사제 성서 연수 : 12~14일(13, 14일 본당 미사 없음)

5. 모임 : 해설자모임, 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15일(목) 오전 10시

빠스카회-18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6. 전입을 환영합니다 : 강대창 아오스팅, 이영만 베드로(완산반)

성당 청소 : 6월17일(토) 이 땅의 빛Pr. 밝히오리다Pr.

금주 전례 : 해설-최우남, 독서-정승관 부부

봉헌-김종성 가족

차주 전례 : 해설-유두석, 독서-황길평 부부

봉헌-첫영성체 어린이

□ 주일헌금 : 674,300원 □ 교무금 : 1,289,5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오늘은 삼위 일체 대축일(연중 제10주일)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축 ! 영령 : 윤 윤리바 수녀님-축하합니다.

1. 모임 :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자모회, 세 영세자 모임-다음주일  
③장년회-17일(토) 저녁 8시 성당 회합실

2. 축 ! 혼인 : 신랑-김윤석(요셉), 신부-홍선희  
오늘 11시30분, 성당

3. 성체 조배 : 6월 15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저녁미사 전

4. 감사 : 성구 구입-익명 10만원, 김안나-2만원, 김금례-1만원

5. 사순절 불우이웃돕기 돼지저금통 : 577,940원

6. 성당 청소 : 금주-신비로운 장미Pr.

차주-모든 성인의 모후Pr.

7. 금주 전례 : 해설-이춘봉. 독서①김영신 ②김금자  
봉헌-남현준 가정

8. 차주 전례 : 해설-우경숙. 독서①최경림 ②이순자  
봉헌-이우동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400,800원 □ 교무금 : 7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금주 모임 안내 :

· 프란치스코 삼회-오늘 오후 2시, 장소-성당

· 성심회-6월14일(수) 전 10시30분, 장소-회합실

2. 차주 모임 안내 : 성모회-6월18일(일)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3. 미사 변경 : 6월13일(화) 신부님 연수로 인해 미사가 없습니다.

4. 자모회에서 고체 주방 세제를 판매합니다.

(1개 3,000원, 2개 5,000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청소 안내 : 금주-사랑하울 어머니 차주-사랑의 샐

6. 전례 안내 : 전례-김종호(프란치스코)

독서①유칠감(베드로) ②이서화(보나)

7. 성전의자 성금내신분 : 강석주(베드로)-250,000, 진진옥(그레고리오)-100,000, 익명-100,000

□ 지난주 봉헌금 : 968,350원 □ 교무금 : 1,565,35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삼위 일체 대축일

1. 금주 : ①사목회(후 8시)

②자모회(전 10시)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2. 사라회 : 13일(전 11시)

3. 너자렛회 : 13일(전 11시)

4. 예루살렘회 : 14일(전 11시)

5. 사베리오회 : 14일(후 7시30분)

6. 돈보스꼬회 : 14일(후 7시30분)

7. 구역빈장 모임 : 15일(전 11시)

8. 사제 연수회 : 12일~14일(나바위 피정의 집)

‘사제 연수회 관계로 13일 새벽, 저녁미사와 14일 새벽미사는 말씀의 전례’

9. 김사현금 20만원 김종순(골룸바) : 감사합니다.

10. 차주 : ①바느의 성모Cu. (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주일헌금 : 2,123,2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A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신께 “영광 밟으소서”

◎ 오늘은 평신도 강론 재경부장 : 윤영이(요한)

1. 교구 사제 연수 : 12일~14일(나바위)  
‘말씀의 전례 13일 저녁 7시30분 최병남 형제 14일 11시 박혜정 차매’

2. 시목회 삼일위원회 : 13일 후 8시 “건축위원회 조정”

3. 세례 대상자 면담 : 16일 전 10시, 세례 문서 지참

4. 세례식 : 17일 후 4:30 대부모 30분 전 도착

5. 세례자 환영식 : 18일 공식미사 후, 어린이-교리실, 중·고생-2회의실, 일반-1회의실

6. 성소 후원의 날 : 18일 공식미사 후, 매미사 전후 회비 납부

7. 기정 방문 : 15일 전 9시 8-5,6반

8. 반미사 : 14일 저녁 8시 8-7, 15일 후 3시 8-12

16일 저녁 8시 8-2

9. 회의 : 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 성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임마누엘, 한빛회-18일 공식미사 후

10. 레지오 미리애 언쇄미사 : 전례 담당표 보시고 책임 완수

□ 지난주 봉헌금 : 1,343,930원 □ 교무금 : 1,347,000원